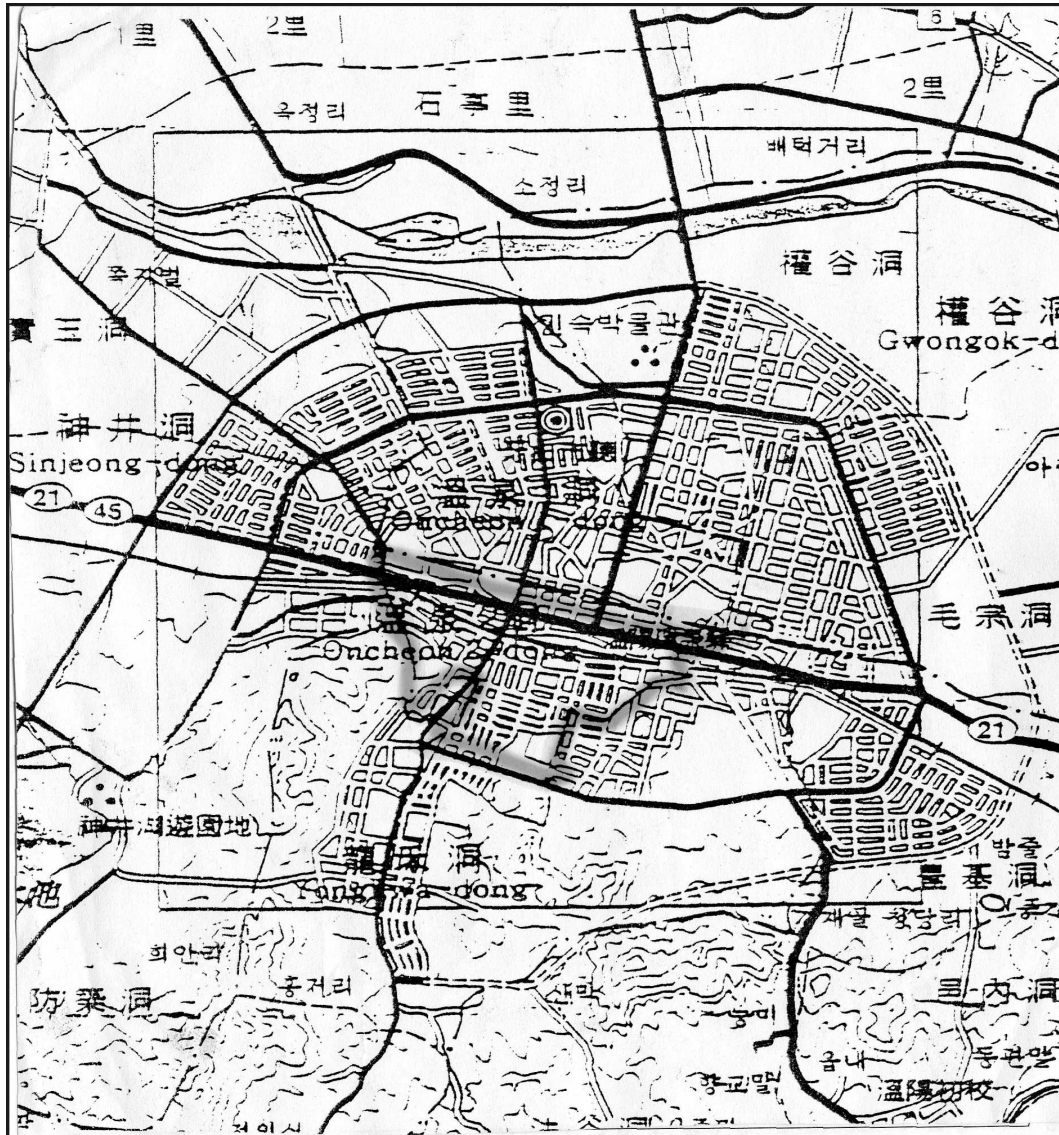


온양온천 2동 (溫陽溫泉 2洞)



온양온천 2동은 16개통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으며 59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양온천 2동 사무소 전경>



☒ 온양온천 2동 개항

- 근치연혁

본래 온양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온천이 있어, 온천이라 하는데, 온양온천2동이 탄생되기까지 연혁을 살펴보면 옛 백제시대에는 탕정 군이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의 일부였으며, 고려시대 때에는 온주현으로 속해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양군으로 승격 되었는바,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14년 3월 1일 일제가 한일합방 후 온양군을 신창, 아산과 통합하여 아산군으로 정하고 온양면이라 하였으며, 1941년 10월 1일에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그 후 45년이 지난 1986년 1월 1일자로 온양읍이 대통령령 제 3789호로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온천 2동으로 불리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도시 통합 정책에 따라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되어 온천 2동으로 이어져 오고있다.

- 반 수

온양온천2동의 행정구역을 보면 16개통으로 7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구 수

온양온천 2동의 가구 수는 1987년에는 2,215가구였으나 2000년에는 3,438가구로 1,000여 세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 인 구

인구를 보면 1987년에는 9,250명으로 남자가 4,499명 여자가 4,751명 이었으며 2000년에는 총11,553명으로 남자 5,982명, 여자 5,57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 면 적

0.63km²

－ 경지면적

경지면적은 임야가 13,941m² 이다.(2000년 12월 31일 기준)

－ 농가구 현황

온양 온천 2동의 농가 수는 235가구로 총 가구 수의 6.8%이다.

－ 산업별 현황

산업별 사업체 수를 알아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344개소이며 금융, 보험업이 10개소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이 46개소, 보건, 사회복지사업체수가 25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장이 3개소로 부지가 3.220m² 이며 주차장이 공영과 민영을 포함하여 100.079m² 차지하고 있다.

－ 학교별 현황

온양온천 2동에는 유치원이 2개소(109명), 초등학교 1개교(1.344명)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없다.

－ 의료시설

의료기관으로는 병원이 1곳, 의원이 16곳, 치과 병의원이 4곳, 한방의원이 2곳이다.

－ 금융기관

금융, 보험업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문화재 현황

도 지정문화재로 제 230호 이충무공 사적비 및 제 314호인 온양 어의정(조선시대)이 있다.

● 이충무공 기념비각 (※사진; 뒷면 39쪽 참조)

온양온천2동 60번지(온양온천역 앞 광장)에 있다.

1951년도에 충청남도지사(이영진)가 이충무공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어 동년 8월에 국고 보조와 그 외의 협조를 얻어 건립한 것이다. 1962년 이후 수차에 걸쳐 군에서 보수를 실시해 1981년경에 비각이 기울어져 도괴될 위험이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있음으로써 1982년도에 13,000천원(도·군비)을 투입하여 완전 해체 복원하였다.

이 비각은 돌로 된 기초 축대 위에 둥근 나무기둥으로 지어진 곳에 본책(본래는 철책)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지붕은 한식 기와지붕으로 단청을 넣은 석가래가 옛 멋을 풍기고 있다. 사방에 비문을 볼 수 있게 된 비신은 조석으로 높이가 215cm이고 폭이 80cm이며 두께가 51cm이다. 비석의 기단인 거북의 모양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비문은 동래 정인보가 한해문으로 짓고 안동 김충현이 글씨를 썼으며 현판은 전부통령 이시영옹이 썼다.

● 온양어의정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세종대왕이 안질 치료를 하였던 우물이라 해서 어의정, 어정어천이라고 불리 우는 우물이 이곳 온양온천2동 일대의 택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물의 형상이 문히게 됨을 안타깝게 여긴 조중렬(90세, 온천동 236-4, 거주), 이한구(용화동 348 거주, 62세)등 29여명의 주민들이 온양시장에게 이 우물의 보존을 건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원형을 찾아 문화유적지를 보존함은 물론 주변 일대를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여 온양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향토애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박찬무 온양시장의 끈질긴 집념으로 공주사대법학 안승주교수가 발굴 조사에 착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됐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충청남도 문화재(문화재자료) 제314호로 지정 받게 되었다.

— 공장현황

공장 없음.

－ 종교분포

분 류	단 체 명	소 재 지
기독교	남산교회	온양온천 2동 212-7번지
	밀알성도예수그리스도교	온양온천 2동 131번지
	성광교회	온양 온천 2동
	열린 교회	온양 온천 2동 568번지
	온양교회	온양 온천 2동 134-10번지
	온양성결교회	온양 온천 2동 152-20번지
	온양온천감리교회	온양 온천 2동 149-47번지
	온천중앙감리교회	온양 온천 2동 204번지
	우리교회	온양 온천2동 131-68번지
	은택교회	온양 온천 2동 266-54번지
	제일침례교회	온양 온천 2동 149-47번지
	한빛교회	온양 온천2동 659번지
	화광교회	온양 온천2동 481번지

<조사당시 온양온천 2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본래 온양온천2동은 온양군 서면 지역으로서 온천이 있어 온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화리 일부를 병합하여 온천리라 하여 온양읍에 속해 있다가 1986년 온양

시로 승격됨에 따라 온천1동과 온천2동으로 나뉘었다. 1995년에 도농 통합으로 아산시에 속해 온양온천2동으로 불리며 1동과는 국도 21호선을 경계로 온양온천2동이 되었다.

－ 통별 인구분포

온양 온천2동은 총인구가 11,553명이며 남자 5,982명 여자 5,571명으로 13개통 가운데 온천 10통이 1,260으로 인구가 많으며 온천7통이 132명으로 가장 적다. 총 가구 수는 3,438가구로 역시 온천7통이 54가구로 적으며 온천10통이 459세대로 가장 많다.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온양온천2동 1통	211명	122명	89명
온양온천2동 2통	599명	288명	311명
온양온천2동 3통	203명	107명	96명
온양온천2동 4통	1,079명	525명	554명
온양온천2동 5통	503명	257명	246명
온양온천2동 6통	900명	429명	471명
온양온천2동 7통	132명	58명	74명
온양온천2동 8통	884명	459명	425명
온양온천2동 9통	1,120명	549명	571명
온양온천2동 10통	1,260명	625명	635명
온양온천2동 11통	1,219명	621명	598명
온양온천2동 12통	1,116명	548명	568명
온양온천2동 13통	649명	546명	303명
온양온천2동 14통	430명	210명	220명
온양온천2동 15통	610명	300명	310명
온양온천2동 16통	638명	338명	300명

－ 통별 가구 수

총 가구 수는 3,438가구로 역시 온천7통이 56가구로 적으며 온천10통이 459세대로 가장 많다.

구 분 마을명	계	농가	비농가
온양온천2동 1통	74 가구	11 가구	63 가구

온양온천2동 2통	227 가구	24 가구	203 가구
온양온천2동 3통	92 가구	7 가구	85 가구
온양온천2동 4통	400 가구	29 가구	371 가구
온양온천2동 5통	186 가구	11 가구	175 가구
온양온천2동 6통	304 가구	11 가구	293 가구
온양온천2동 7통	56 가구	5 가구	51 가구
온양온천2동 8통	334 가구	15 가구	319 가구
온양온천2동 9통	376 가구	32 가구	344 가구
온양온천2동 10통	459 가구	24 가구	435 가구
온양온천2동 11통	441 가구	14 가구	427 가구
온양온천2동 12통	292 가구	38 가구	254 가구
온양온천2동 13통	200 가구	0	200 가구

－ 통별 생업

온천2동은 생업 현황을 보듯이 전형적인 도시 밀집 지역으로 농업종사자는 극히 적으며 그 중에서도 온천 13통부터 16통 까지는 아파트 단지로 100%로 모두 상업등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통도 85% 이상이 상업등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등 기타
온양온천2동 1통	100%	15%	85%
온양온천2동 2통	100%	11%	89%
온양온천2동 3통	100%	8%	92%
온양온천2동 4통	100%	7%	93%
온양온천2동 5통	100%	6%	94%

온양온천2동 6통	100%	4%	96%
온양온천2동 7통	100%	9%	91%
온양온천2동 8통	100%	4%	96%
온양온천2동 9통	100%	8%	92%
온양온천2동 10통	100%	5%	95%
온양온천2동 11통	100%	3%	97%
온양온천2동 12통	100%	13%	87%
온양온천2동 13통	100%	—	100%
온양온천2동 14통	100%	—	100%
온양온천2동 15통	100%	—	100%
온양온천2동 16통	100%	—	100%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임야
온양온천 2동	13,941ha	—	—	13,941ha

— 산업별 현황

온천2동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30%, 금융보험업이 8%, 제조업이 4%, 건설업이 3%이며 그밖에 기타 업종에 55%이다.

온천2동은 도시형 상업지역으로 농경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마을명	계	건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보험	기타
온양온천2동	100%	3%	4%	30%	8%	55%

— 통별 문화시설

온천2동의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통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각1곳씩 있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온양온천2동 1통	1	-	-	-	-
온양온천2동 2통	1	-	-	-	-
온양온천2동 3통	1	-	-	-	-
온양온천2동 4통	1	-	-	-	-
온양온천2동 5통	1	-	-	-	-
온양온천2동 6통	1	-	-	-	-
온양온천2동 7통	1	-	-	-	-
온양온천2동 8통	1	-	-	-	-
온양온천2동 9통	1	-	-	-	-
온양온천2동 10통	1	-	-	-	-
온양온천2동 11통	1	-	-	-	-
온양온천2동 12통	1	-	-	-	-
온양온천2동 13통	1	-	-	-	-
온양온천2동 14통	1	-	-	-	-
온양온천2동 15통	1	-	-	-	-
온양온천2동 16통	1	-	-	-	-

－ 최고령자

온양온천 2동의 최고령자는 최병임 할머니(95세)이다.

－ 통별 사진

<온양온천 2동 1통>



국도 21번 도로의 서남쪽으로 시내 중심 지역

<온양온천 2동 2통>



장항선 철로 뒤편에 위치. 2통사무소가 있고
장골 뒷산에 효종때 효자 시암 조상우의 묘가 있음.

<온양온천 2동 3통>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마을
이충무공 기념비가 역전광장에 위치하고 있음

<온양온천 2동 4통>



온천2동 사무소가 위치하고 용화동과 인접하고 있음

<온양온천 2동 5통>



온양온천역 남쪽에 있는 마을
온천리 4구에서 86년 온양시가 되면서 온천2동 5통으로 현재에 이름

<온양온천 2동 6통>



제일타워 뒤편으로 삼원주택, 대성연립, 온양연립, 무지개연립, 온양교회, 신흥빌라 등이 위치
온천리 4구에서 86년 온양시가 되면서 온천2동 6통이 되었음

<온양온천 2동 7통>



국도 21호 옆에 위치
제일관광호텔, 공립병원, 온천파출소가 있는 곳

<온양온천 2동 8통>



철독 넘어 숙골 입구 우측 변에 위치
온양문화원, 의당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남산 빌라가 위치

<온양온천 2동 9통>



아래 숙골 입구와 인접, 제일타워, 진진 카 센터 등이 위치

<온양온천 2동 10통>



6통과 13통이 접해 있고 온정아파트 옆 용화천주교회 길 건너편에 위치, 택지개발 구역

<온양온천 2동 11통>



삼정하이츠 길옆에 위치
세종대왕 안질을 치료하였다는 우물인 어의정이 있는 마을

<온양온천 2동 12, 14통>



용화동에서 95년에 온천2동으로 편입
전형적인 아파트 부락임(삼정하이츠아파트) 6개동으로 구성

<온양온천 2동 13, 15통>



시영아파트와 온정아파트로 200세대이며 3동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초등학교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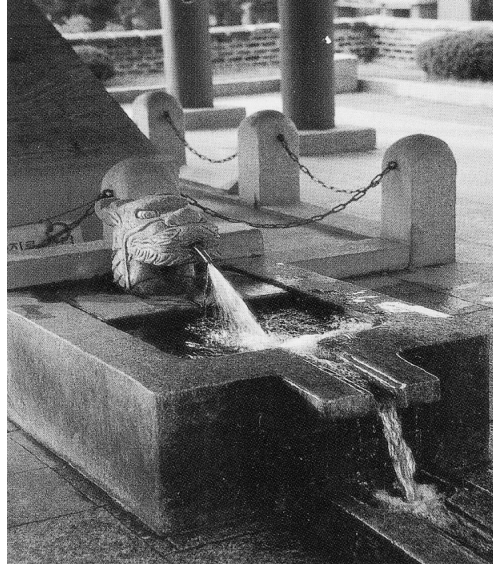
<온양온천 2동 16통>



16통은 다가구 주택지로 어의정이 있는 11통에서 분통
온천 15통 옆에 위치

— 지명

- 어의정 : 세종대왕 안질을 치료하였다는 우물



- 온양온천역 : 온천동에 있는 장항선의 정거장 1922년에 개설됨
- 이충무공 기념비 : 온양온천역 앞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비 높이 7자가 되는데 삼층으로 새기고 1951년에 세웠음



- 장-골 : 온양온천역 동쪽에 있는 마을
- 조시암-묘 : 장골 뒷산에 있는 효종때 효자 시암(時庵) 조상우의 묘



- 창고말[마을] : 온양온천역 남쪽에 있는 마을
- 삼중산 : 둥그스레한 띠를 두른 듯한 완만한 경사의 산으로 재래의 명칭이 남산이라 하며 산책로와 누정이 있어 산책코스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전설

● 남산의 유래

고려 태조가 유검필에게 명하여 탕정군에 성을 쌓았다. 이때 후백제의 장수 금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청주를 침공하였다.

하루는 검필이 남산에 올라앉아서 즐고 있었는데, 꿈에 한 거대한 사람이 말하기를□내일 서원에 반드시 변란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검필이 놀라 깨어 청주로 달려가서 후백제의 군사와 더불어 격퇴하고 독기령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포로한 것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 입안리, 명암리, 회안리

고려조 초기에 도선증사가 답산 초사리 후 옆 산에 올라보니 이 산자락에 왕이 나올 자리가 있으므로 산을 쫓아오다가 갓 바위까지 와서 갓을 벗어 놓았다하여 갓바위라하며 올라위에 와서 산혈구를 잃고 울었다하여 올라위라 하고 회안리에 와서 산혈구를 잡고 무릎을 치며 회안하다 하여 회안리라 하였다.

남산에 올라보니 왕이 나올 자리는 구온천 탕수 나오는 자리라 하더라.

● 아기산

온천동 아기산의 전설이다. 옛날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가난하면서도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한창 젊은 나이여서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 남편은 남의 집일도 해주며 나무도 팔았고 부인도 남편 못지 않게 남의 집안 일을 열심히 해주어 머지않아 금방 부자가 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부부한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인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 별 치성을 다 드렸다.

그날도 밤에 정화수를 떠 놓고 삼신할머니께 빌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사이에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팔자에는 자식을 둘 팔자가 아니지만 내 너희들이 치성을 지극하게 여겨 옥황상제의 아드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부디 행복하게 잘 키워 훌륭한 사람을 만들도록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뒤 부인이 태기가 있어 옥동자를 낳았다. 이 부부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진이라 불러 부부들이 가진 것 또는 안 가진 것 중에서도 진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었다.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진이 네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진은 그렇지 못했다. 진의 어머니는 몸도 약하신 분이려 너무나 힘든 일을 하셔서 쓰러진 것이다. 진의 슬픔도 큰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슬픔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진을 위해서라도 슬퍼 할 수만은 없었다. 진의 엄마가 살아 있었을 때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수가 있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어느새 진의 나이 열살이 되었다. 진의 아버지는 식구들 권유에 못이겨 재혼을 했다. 그런데 계모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어린 진은 그 모진 학대를 말 한마디 없이 달게 받았다. 그날도 몹시도 추운 동짓달이었다.

마침 아버지는 동네 환갑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셨다. 계모는 기회는 지금이다 하고 진을 그 어두운 밤중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다. 그 전에 미리 계모는 산에다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었다. 진은 그것도 모르고 계모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진은 소리치며 소리 내어 울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추운 겨울에 그것도 킁킁한 밤중에 누가 산에 올라 왔겠는가 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이튿날 진의 시체는 마을 사람들 앞에 뉘어졌다. 진의 아버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동네 사람들의 위로에 힘입어 조금씩 정신을 차리더니 매일 부인의 묘소와 진의 묘소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거의 반 미친 것이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진의 계모를 동네에서 내쫓아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한 가족이 몰살되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거의 70년이 흘렀다. 진의 묘소와 어머니의 묘소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다만 그때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조그마한 아기산이 있을 뿐이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 산당제

확실한 연대와 정확한 내력은 알고 있지 못하며 전하여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90여년 전에 가뭄과 병마에 시달려 마을 주민들이 편안히 살 수 없어 산제당을 짓고 여기에 제주와 발기인들이 목욕을 하고 전 주민들이 참례하는 가운데 제물을 놓고 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와 기일은 주민들이 모여 좋은 날을 선정 하고 덕망 있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제기를 새것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하며 산제를 올린 해는 농사도 마음대로 잘 지을 수 있고 병마에 시달려 죽는 사람 없이 사고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한해가 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대손손 실시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은 유아무야 하는 형편이며 날로 참여하는 빈도가 낮아 현재에 와서는 산제를 지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다음은 온양온천2동인 남산에 호국염령을 모시고 있는 충영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 충영각

충영각은 기와지붕의 편편한 한국식의 건물을 신축하고 순국열사들의 영령을 안치하였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각계의 유지인사가 모여 위령제를 경건하게 거행함으로써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왔다. 이 충령각의 건립에 공헌이 많았던 사람은 그 당시의 아산군수로 있었던 임영재이고, 보좌하여 협력해 주신 분은 유족이신 박준영, 이규택이며 재정유사에 전중영, 정희영이었다. 본 사우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수호하고 관리를 하여 왔는데 1963년도에 증수하여 단청을 장엄히 하고 국기계양대 및 오르내리는 계단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제기집물을 갖추어 먼목을 새롭게 하였다. 영령의 봉안 위수는 신소령 외 887명이다. 위패는 높이가 6폭, 폭이 2촌의 목조에 검정색의 큰 글씨로 계급 이름을 기재하여 안치하였다. 위령제의 제관을 보면 대개 초헌관은 당시의 군수, 경찰서장 순이었으며, 종헌관은 유족대표가 행하였다. 그리고 유족들의 분향과 유지대표의 헌화로 행하여졌고, 유가족에게 다소의 위문품과 기념품도 제공되어졌다. 제사음식으로는 생과, 떡, 술, 포 등이었고 이 충령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에 위치하게 된 보광사는 불당을 짓고 불사를 행하였다.

본 사우는 건립 햇수가 오래되어 대부분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초라한 건물이었다. 1982년에 당시의 아산군에서는 전몰군경유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오랜 소망이며 숙원이었던 충령사 이전건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의 위치(온양시 온천동 산 26-8, 방축동 24-5)에 충열탑을 새로이 건립하고 이곳에 영령들을 받들어 모시었다.

● 충열탑

1982년에 민의 정성어린 협조와 참여로 충열탑을 건립하고 이곳에 영령을 봉안하였다. 이로써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충의정신을 더욱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탑 시 문)

여기 못잊을 6·25이후
우리 강토와 월남에서도
피끓는 젊음 바치고 가신
이 고장 출신 군·경용사의
충열의 넋이 고이 잠든 곳
이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돌에 올려서 높이 세우니
정든 고향을 곁어보시며
남산과 함께 평안하소서.